

SeMA

Press Release Ver. 1

2019. 10. 1

홍보담당 김채하

Public Relations Kim, Chae Ha

T. 02-2124-8928

E.mail. chaeha@seoul.go.kr

webhard. <http://sema.webhard.co.kr>

ID:semapress PW:sema

2019 서울사진축제 《오픈 유어 스토리지: 역사, 순환, 담론》



전시명	2019 서울사진축제 《오픈 유어 스토리지: 역사, 순환, 담론》
전시기간	2019. 10. 1(화) - 2019. 11. 10(일)
전시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실1,2 프로젝트 갤러리1,2
전시부문 · 작품수	사진, 영상 등 128점(아카이브 별도)
참여작가	31팀
주최·기획	서울시립미술관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19서울사진축제 《오픈 유어 스토리지: 역사, 순환, 담론》 개최
- 제10회 서울사진축제는 1950년대 한국 사진사의 아카이브를 기초로 구성된 '역사'(전시1), 동시대 사진 행위와 생산물을 리서치하는 '순환'(전시2) 그리고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진 그룹의 생생한 토론현장을 중계하는 '담론'(프로그램)을 선보임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 가까운 도봉구 창동에 2022년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 사진미술관(가칭)의 활동을 예비하여
- 도시 서울과 사진매체, 그리고 현대미술관의 삼각구도가 포착하는 예술의 공공적 지평이 가시화되고 보다 확장되기를 기대

전시 내용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2019서울사진축제 《오픈 유어 스토리지: 역사, 순환, 담론》을 개최한다. 10회째를 맞는 올해 서울사진축제는 1950년대 한국 사진사의 아카이브와 작품으로 구성된 ‘역사’(전시1), 동시대 사진 행위와 생산물을 리서치하고 전시하는 ‘순환’(전시2) 그리고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진 그룹의 생생한 토론현장을 중계하는 ‘담론’(프로그램)을 담아낸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 가까운 도봉구 창동에 2022년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 사진미술관(가칭)의 활동을 예비하고, 도시 서울과 사진매체, 그리고 현대미술관의 삼각구도가 포착하는 예술의 공공적 지평이 한층 가시화되고 보다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 전시구성 및 참여 작가 :

〈전시 1〉 프로젝트 갤러리 1, 2	《명동싸롱과 1950년대 카메라당》	성두경, 이경모, 이형록, 임응식, 임인식, 한영수 6명
〈전시 2〉 전시실 1	《러브 유어셀프》	기술기, 김도균, 김문독, 김신욱, 무궁화소녀, 문형조, 박동균, 송예환, 솔림, 안성석, 파트타임스위트, 불꽃페미액션, @blue1027_ 13팀
〈프로그램〉 전시실 2	《리서치 쇼》	김민, 박수지, 박지수, 포럼A, 송수정, 손이상, 전가경, 최혜영, 황예지, 보스토크프레스, 글래머샷, 사진바다 12팀

전시1

《명동싸롱과 1950년대 카메라당》

- 사진 관련 주요 기관과 시설, 상점이 모여 있던 명동을 매개로 사진단체사, 전쟁사진, 상업사진, 사진통신사, 공간, 출판 등 1950년대 한국사진의 제도 안팎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살펴봄
- 1950년대의 예술사진을 ‘리얼리즘’과 ‘살롱사진’의 이분법적 구도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담론을 넘어, 한국사진에서 모더니즘적인 의식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로서 재발견하는 전시
- 한국사진의 근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분기점으로서의 1950년대를 돌아봄

전시 내용**전시2****《러브 유어셀프》**

2019서울사진축제 전시2 《러브 유어셀프》는 동시대 사진-행위들에 대해 살펴본다. 동시대 예술로서 사진은 사진 이미지 본정보다는 미술과 같이 진행과정이나 참조, 실천 같은 수행성, 그리고 그것의 생산, 유통, 소유 등 메타 사진적인 부분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때문에 이번 전시는 사진의 작용이 발생하는 현재의 매체와 플랫폼, 이를 추동하는 동기들과 오프라인에까지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전시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모두 새로운 매체와 이미지에 대한 결합을 기반으로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온-오프라인을 가로지르는 사진의 작동과 작용에 대해 탐구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가진 작품들이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과 작동방식 위에서 이미지와 감각의 작용에 대한 실험 역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사진 이미지의 순환과정 자체의 문제를 끌어올리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가 사진 이미지들의 특이점을 통해 플랫폼의 역할, 이미지의 전략, 이미지의 퍼포머티비티를 포착하며, 프레임을 벗어나 확장하고 결합하며 새롭게 생성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오늘의 사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프로그램**《리서치 쇼》**

2019 서울사진축제 프로그램 <리서치 쇼>의 목표는 우리를 둘러싼 사진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사진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할 키워드들을 선정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리서치 테이블>이라는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사전 리서치를 통해 생산된 결과는 각 프로젝트에 적합한 형태로 공간에 전시되고 축제 기간 내 강연으로 이어진다. 또한 전시와 강연을 정리해 전시 종료 후 <리서치 노트>를 제작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박수지, 박지수, 포럼A, 손이상, 최혜영, 송수정, 김민, 전가경, 황예지 등 총 9명(팀)이 참여했다. 전시는 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 2층 전시관에서 진행되며 전시장 내 조성된 강연장에서 주말을 이용해 90분 내외의 강연이 진행된다.

전시 내용 <리서치 테이블>뿐만 아니라 동시대 사진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VOSTOK MARRY-GO-ROUND>가 10월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전시 기간 중 전국의 사진학과 대학생들과 사진-미술 현장의 링크를 만들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 <티타임>이 진행된다. 이 라운드 테이블은 기존의 포트폴리오 리뷰형식을 탈피하고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전시장 중앙에는 새로운 감각의 가족사진으로 주목 받고 있는 글래머샷의 포토존 <Welcome to Glamour Land>가 설치되고 2005년부터 꾸준히 사진계 소식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사진바다>의 새로운 웹 아카이브 플랫폼 <아카이브 사진바다>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프로그램

도슨트 투어		
	시간	회수
평일	11:00, 13:00, 15:00, 17:00	4회
주말 (공휴일 포함)	11:00, 15:00, 17:00	3회

강연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장소	신청방법
1	리서치 쇼	일반인 600명	2019.10.05. ~ 11.10	2층 전시장	홈페이지 안내
세 부 구 성	<p>2019년 10월 5일 토요일 오후 4:00 박지수 <뉴-플레이어 리스트: 동시대 사진 작업의 감각 변화></p> <p>2019년 10월 6일 일요일 오후 4:00 박수지xLESS <문학적 절대: 스냅 이데아></p> <p>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4:00 포럼A <이미지, 어디까지 속아줄 것인가?></p> <p>2019년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4:00 손이상 <순례의 증거></p> <p>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20 VOSTOK MARRY-GO-ROUND</p> <p>2019년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1:20 VOSTOK MARRY-GO-ROUND</p> <p>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4:00 최혜영x김키미 <국가를 막아선 사진들></p> <p>2019년 11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송수정 <국립현대미술관의 사례로 본 미술관과 사진></p> <p>2019년 11월 3일 일요일 오후 3:00 김민 <디지털 시대- 이미지와 욕망에서 비롯되는 감시와 인공지능></p> <p>2019년 11월 9일 토요일 오후 3:00 전가경 <전위(avant-garde)와 후위(arrière-garde)의 교차: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잡지 <샘이깊은물>의 포토/텍스트(photo/text)></p> <p>2019년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3:00 황예지x페미당당 <몸과 몸 사이></p>				

모든 프로그램은 미술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 02-2124-5277

전시1 《명동싸롱과 1950년대 카메라당》



한영수, 〈서울 명동〉, 1956,
디지털잉크젯프린트, 80×53cm,
한영수문화재단 소장

한영수는 신선희, 한국사진작가협회 등의 사진단체에 입회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그는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가협회 사진부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문화계, 미술계 내에서 사진의 위상을 다지는데 힘썼다. 광고사진스튜디오 '한영수사진연구소'를 설립 및 운영하던 그는 국내외 광고사진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영수는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 (Henri Cartier-Bresson)의 프레임 미학을 가장 완벽하게 체화하고 시각적으로 구사한 사진가이다. 그는 일상 공간의 모든 것을 사진 화면을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로 환원시켜 보여주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프레임의 자율성을 통해 사진의 미적 모더니티를 성취한 작업들을 볼 수 있다.



성두경, 〈반도호텔 동편 대피계단〉, 1950~1960년대,
디지털잉크젯프린트, 68×68cm,
개인 소장

성두경은 작품 활동뿐 아니라 종군사진, 상업사진, 통신사 근무 등 사진계 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서울시청 촉탁사진가로 근무하고 이후 한국전쟁 당시 헌병대 사정보(司正報) 사진기자로 종군활동을 하였다. 동화백화점에서 사진재료상을 운영하던 성두경은 1955년 반도사진문화사를 개업하기도 했으며, 『동방사진뉴스』의 편집국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한국사진작가단과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했다.

성두경은 그의 도시사진 속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근대성을 반영해내고 있다. 단지 도시성을 사진으로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시 경관 속에서 매체의 리얼리티를 찾아낸다. 도로와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기학적 형태에 더해, 앵글과 프레임의 조합을 통해 탈대상화를 시도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임응식, <나무기둥결>, 1960,
잉크젯프린트, 84×61cm, 임상철
소장

임응식은 1946년 9월 부산광화회를 조직하고, 이어 부산예술사진연구회에서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미국무성 소속으로 종군했다. 이후 한국 사진 제도의 확립과 사진의 예술적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임응식은 한국 리얼리즘 사진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생활주의 사진의 주창자이기도 했으나, 그의 작품 중에는, 미국의 모더니즘 사진가 에드워드 웨스턴(Edward Weston)처럼 클로즈업을 통해 세부 묘사를 강조하거나 크로핑에 의한 추상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는 경향들 또한 나타난다. 그가 선택한 피사체는 <분수대>처럼 인공물을 취하기도 하지만, 주로 바위나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조형적 세계를 구축해낸다.



이형록, <건설, 서울>, 1960,
잉크젯프린트, 63×78cm, 개인 소장

이형록은 신선희, 짜롱 아루스, 현대사진연구회 등 50-60년대 주요한 사진단체를 조직하였다. 국내외 전시 및 공모전에서 활약하던 그는 사진 잡지였던 『월간 포토그래피(월간사진)』, 월간 『사진예술』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사진사 서술에서 리얼리즘 계열의 사진가이면서 조형성을 시도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던 이형록의 작품에서는 추상성의 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전시에서는 선적인 요소가 많은 인공구조물을 역광인 상태에서 촬영하여 실루엣으로 처리한 기하학적 추상사진들과, 자연에서 발견되는 선과 그 선들이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형태와 패턴을 과감한 화면구성으로 완성한 유기체적 추상사진 모두를 볼 수 있다.



임인식, 〈명동〉, 1950년 10월,
디지털잉크젯프린트, 80×120cm,
청암아카이브 소장

임인식은 한국전쟁 당시 육군 대위로서 국방부 정훈국 사진대 대장으로 종군했으며, 1952년 5월 예편 후 대한사진통신사를 설립하고 전쟁 및 육군 관련 사진 기록을 맡았다. 그는 국군의 후퇴, 한강철교의 폭파부터,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 이후의 북진과 흥남철수를 비롯해 정전회담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의 주요 국면들을 장기간에 걸쳐 가장 가까이 취재했다. 한국전쟁 당시, 여러 사진가들이 국방부 정훈국을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종군하며 전쟁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 전시에서는 폐허가 된 명동의 사진을 통해 이들을 조명한다.



이경모, 〈명동〉, 1950년 10월,
디지털잉크젯프린트, 80×95cm,
이승준 소장

이경모는 호남신문사 사진부장으로 근무했으며, 한국전쟁 중 1950년 8월 14일부터 1951년 3월 하순까지 국방부 정훈국 보도과 사진대 문관으로 종군했다. 1950년 8월 포항지구 전선, 10월 북진에 참여했고, 1.4후퇴 시 광주로 돌아왔다. 호남지구를 자원해, 지리산 빨치산 토벌, 광주, 담양, 화순 지역의 포로수용소 등을 취재했으며, 1951년 부산으로 내려와 한국사진신문사 (편집국장 김정래, 발행인 한웅태)의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이경모가 촬영한 명동의 사진은 1950년 서울 수복 당시 촬영한 것이다.



『사진문화』 창간호, 1956,
한국사진문화사,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소장

섹션6.출판에서는 1950년대 한국사진계의 상황과 담론, 그리고 당대의 사진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 전문 잡지, 기술서, 사진화보집 등을 선보인다.

해방 후 사진 전문 잡지는 1948년 조선사진문화사에서 창간한 『사진문화(寫眞文化)』가 유일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서울 점령 시기 발행인 이동호가 납북됨으로써 통권 12호를 마지막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이후 평소 이동호를 존경해왔던 조명원이 한국사진문화사를 설립하고 1956년 5월부터 동명의 사진 잡지 『사진문화』(통권 13호)를 발행했다.

『사진문화』는 1950년대 후반의 유일한 사진잡지로서, 회원전과 공모전 등 주요 사진전에 출품된 사진을 소개하거나 화보, 사진기술, 기자재 정보, 비평과 함께 주요 사진가 및 단체의 활동 소식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당시의 한국사진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명랑』, 1958년 5월호, 국회도서관
소장
(사진가 신상우, 표지모델 한미나)

1950년대 주요 잡지들 중, 1956년에 창간되어 대중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명랑』은 당대 여배우들이나 여대생 등의 화보를 표지사진의 주요 컨셉으로 이어갔다. 유머나 연재소설 등의 오락적 요소와 당시 활성화되기 시작 하던 영화예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명랑』 외에도 『여성계』, 『여원』, 『야담』 등, 한국전쟁 이후 사진이미지의 대량 생산 및 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대중잡지에는 잡지사들이 사진가에게 의뢰한 사진 및 화보가 다수 실렸다. 50년대 사진가들은 잡지사에 소속되거나 촉탁사진가로서 활동하며 많은 상업사진을 생산하였고 이는 1960년대에 더욱 활발해진다.

기존의 사진사 기술이 예술사진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업 사진 및 사진가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만큼, 50년대 대중잡지 표지사진의 아카이브를 통해 당시 상업사진가들의 존재를 밝히며 상업사진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시2 《러브 유어셀프》



@blue1027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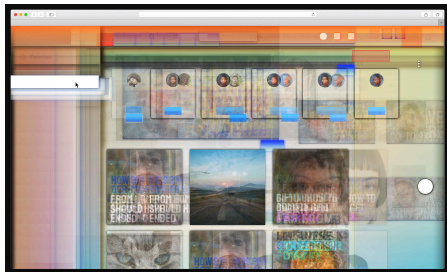
〈아이돌 지하철 광고〉

Idol Subway Advertisement

2019, LED 라이트 패널

LED light panel, 170x332cm

〈아이돌 지하철 광고〉는 @blue1027_라는 팬이 ‘프로듀스 X 101’에 참여했던 김우석을 응원하기 위해 실제로 강남구청역에 게재했던 광고이다. 지하철역에서 아이돌 광고를 마주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었다. 이런 광고는 팬 자신이 아이돌을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으로 제작하고 광고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을 통해 새로운 팬덤의 특징과 그 영향력을 알 수 있다. 그것의 핵심은 자기주도성이다. 아이돌 문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대중에게 알리는 ‘기획자’이자 ‘생산자’가 된 것이다. 방탄소년단(BTS)의 팬클럽인 아미(ARMY)처럼, 이런 이미지 생산 활동을 무기로 새로운 팬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에서 리액션 비디오, 퍼포먼스 비디오 등 다양한 시각적 패턴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송예환

Yehwan Song

〈템플릿과 이미지의 반복〉

Templates and The Repetition of Images

2019, 웹사이트(html, javascript, CSS), 모니터, 노트북, 스마트폰

Website(html, javascript, C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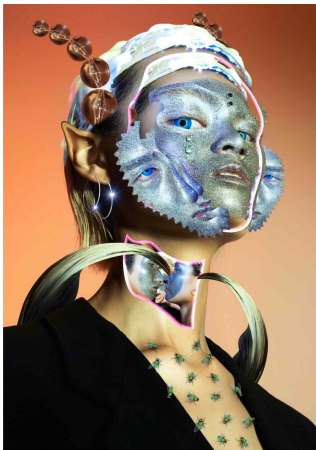
monitor, laptop, smartphone

〈템플릿과 이미지의 반복〉은 전문가에 의해 생산되어 왔던 사진이 이제 대중에 의해 대량으로 재생산되며, 대중에게 친숙한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형태를 띠는 상황에서 그 시각적 패턴을 관찰한 결과물이다. 기존 창작물의 형식을 바탕으로 생산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의 전파공간이 한정된 틀을 가진 SNS공간이라는 점에서, 재생산된 이미지들은 일정한 시각적 패턴을 띄게 된다. 작가는 SNS상에서 전파되는 2차 생산물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같은 패턴의 유사한 이미지를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제작하였으며, 그것이 생산해내는 결과물 각각을 추상화된 SNS공간에 올린 뒤, 그 모든 웹사이트를 겹쳐 하나의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생산된 결과물은 데스크탑을 통해 볼 수 있고 클릭을 통해 화면 이동이 가능하다. 관람객은 웹사이트를 작동해보면서 유사한 패턴의 이미지가 반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때로는 웹사이트가 스스로 자신의 일부를 확대해 보여주기도 한다. 모바일 뷰에서는 그 패턴화된 이미지들을 확대, 관찰할 수 있다. 웹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사진의 2차 생산과 재생산의 반복을 통해 도리어 원본과 판을 흔드는 차이의 흐름을 가시화하는 작품이다.

**파트타임스위트****Part-time Suite**

〈75A- 만 레이 시스템[오피셜 뮤직비디오]〉
 75A- Man Ray System[Official MV]
 2016,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4분
 HD Video, color, sound, 4min

〈75A- 만 레이 시스템 [오피셜 뮤직비디오]〉는 미술가 콜렉티브 '파트타임스위트'(Part time Suite, 박재영/이미연)가 연출한 '75A'의 노래, '만 레이 시스템'(Man Ray System)의 뮤직비디오다. 노래의 제목처럼 20세기 초의 사진가 만 레이(Man Ray, 1890-1976)가 촬영한 흑백사진 느낌의 초현실주의적이고 나른한 분위기 속에,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다섯 명의 남성과 여성, 새, 고양이, 뱀의 신체 부위와 그 움직임을 담았다. 체모와 깃털, 피부 등 서로 다른 질감을 가진 신체 부분을 확대하여 관성적인 포르노그래피의 파편화-클로즈업 문법을 차용하되 각자가 주체가 되어 욕망을 발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양성을 획득하고, 신체의 부위를 성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거나 신체의 물리적 형태로 성별 정체성을 추측하는 시각적 관념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사진을 포함한 무빙이미지가 유튜브라는 산업적 시스템에서 유통되면서도 어떻게 상업화와 대상화라는 부분을 해체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지, 그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작품이다.

**김문독****Kim Moondog**

〈오픈 인섹트〉
 Open Insect
 2019, 디지털 C타입 프린트
 Digital c-type print, 200X141.5cm

〈오픈 인섹트〉 등은 대상에 대한 공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동시대 문화, 특히 드래그퀸 같은 소수 문화나 인디 뮤지션의 앨범 아트워크, 청춘들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증폭시키는 김문독의 작품이다. 작가는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였고 드로잉, 일러스트, 패턴 등을 활용하는데, 디지털이나 필름, 그래픽 등 도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이미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드래그 퀸, 드로잉, 콜라주 등 작가의 특징적인 작품들이 소개된다. 콜라주는 뮤지션 '새소년'의 아트워크로, 반복되거나 변형된 형태의 콜라주는 해당 뮤지션의 음악과 성격을 반영하는 공감각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메이크업이나 색상, 드로잉이 더해진 작품들은 인물을 그래픽의 요소로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발생시킨다. 작가의 SNS를 통해 공개되는 이 작품들은 누구나 발언이 가능하고 그 발언이 차등 없이 유통될 수 있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타고 물리적, 심리적 거리나 경계를 넘어 동시대의 문화를 시각적으로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박동균****Vak DongKyun**

〈LF1F3CFP.FR-20227-UA_Monte Renoso〉

2019, 린넨에 UV 프린트

UV print on linen, 528x297cm

〈약한 연결〉 시리즈는 사진의 물리적 대상과 디지털 이미지 사이의 약화되거나 상실된 링크에 대한 탐구이다. 작가는 기록, 연출, 시뮬레이션이라는 산업화된 이미지 제작 공정을 통해 획득되는 보편성이 한편으로는 피사체가 개별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약화시킨다고 본다. 그리고 약화된 그 틈새에서 또 다른 시각적, 인지적 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프로세스를 실험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과학, 기술, 산업 같은 매커니즘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이미지 자체의 조형성으로 말미암아 사물의 미적 상태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온라인 시대의 사진-이미지가 가지는 생산 방식으로 인한 시각적 특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제네릭 이미지〉(Generic image)는 〈약한 연결〉시리즈의 한 갈래로서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복제가 가능해진 약을 일컫는 '제네릭'이라는 단어처럼 오리지널리티를 벗어나 무한 복제, 생성이 가능해진 이미지들을 실험하고 분류하기 위해 작가가 고안한 이미지 분류 프로토콜이다. 복제약이라고 해서 약의 효능이 다르지 않고 양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해 일반성과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듯, 〈제네릭 이미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구하는 이미지이다. 작가는 마치 광고처럼 보이는 이미지와 작가의 이니셜 텍스트, 그리고 이 작품이 미술관에 전시됨으로서 그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을 통해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 보편 디지털 이미지의 미적 매력과 그것이 발생하는 산업적 매커니즘을 드러낸다.

**문형조****Hyungjo Moon**

〈공적 만남〉

Formal Meeting

2018,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Archival pigment print, 28x21cm

〈공적 만남〉 등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문형조의 16점의 작품은 사진이 포스트인터넷 아트의 재료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진을 중심으로 포스트인터넷 아트를 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을 보여준다. 포스트인터넷 아트는 디지털 온라인을 기반으로 우리의 인지와 감각, 사고체계가 변화한 양상을 드러내는데, 작가는 현실 세계와 그 시간을 포착하는 사진의 특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레이어를 겹치거나 포토샵을 사용하여 드로잉 하는 등 입체적으로 사진 이미지를 섞고 쌓아나간다. 이런 이미지들은 완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 구성을 통해 열려있는 의미와 감각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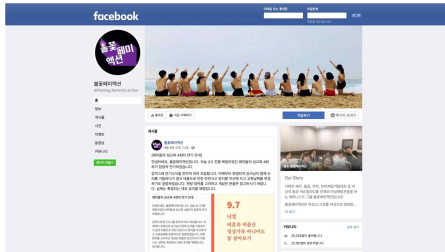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는 필름카메라를 통해 빈티지하고 몽환적인 표현방식, 화려한 색감 같은 작가의 개성으로 정서적 울림을 담아낸 작품이다.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일반화된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사진으로 그들을 재발견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델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자기 긍정적 이미지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소통을 불러일으켰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주목 받아 BTS등 다양한 스타들과 작업하고 있다. SNS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얼마나 더 비싼지, 더 화려한지 등을 경쟁할 때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무궁화소녀**Mugung**

〈러브 유어셀프〉

Love yourself



〈불꽃페미액션 페이스북〉은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의 온라인 활동 플랫폼이다. 이들은 ‘여성의 몸에 부여되는 음란물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겠다’는 취지로 상의를 전부 탈의하는 ‘찌찌해방만세’ 행사와 제모하지 않은 거드랑이를 보이는 ‘천하제일 거털대회’ 행사를 주최하고 이 활동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해당 게시물을 ‘나체, 성적 행위에 관한 게시물’로 분류해 삭제했고 불꽃 페미 액션이 항의한 뒤에야 삭제되었던 사진을 복구였다.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의 이미지가 소비되는 방식 중 하나는 관음적 소비일 것이다. 불꽃페미액션 페이스북의 이 사진들은 관음적 소비에 대항하여 터부시되었던 여성 상의 탈의 이미지 그 자체로 강력한 시각적 의견개진을 이뤄낸다. 나아가 이러한 사진 이미지의 유통은 하나의 온라인 액티비즘(활동주의, 실천주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꽃페미액션**Flaming Feminist Action**

〈www.facebook.com/
flaming.feminist.action〉

2019, 웹사이트 Website

**김신욱****Shinwook Kim**

〈언네임드 랜드: 에어 포트 시티〉

Unnamed Land: Air Port City

〈언네임드 랜드: 에어 포트 시티〉(Unnamed Land: Air Port City)시리즈는 작가가 오랜 시간 공항 주변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관찰한, 공항을 중심으로 생성되는 주변 모습의 특징과 공항이라는 장소와 다층적, 다면적 관계를 맺는 여러 개인들의 군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은 공항이라는 장소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공간과 상황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공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소성과 파생되는 의미들을 드러내게 된다. 각각의 이미지에 접속하면 그 아래 감추어진 이야기가 떠오르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면 결국은 큰 틀의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서로 상호 참조될 수 있는 위키피디아의 세계처럼, 사진으로 이루어진 열려있고 확장되는 세계를 보여준다.

**김도균****KDK**

〈인스타그램@kdkkdk〉

instagram@kdkkdk

20110326-20171214, 총 1555장,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Archival pigment print, 각 11x9cm

〈인스타그램@kdkkdk〉(Instagram@kdkkdk)은 2011년부터 작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한 1555장의 사진을 폴라로이드 사진 형태로 출력하고 작가의 서명과 작품번호, 업로드 날짜를 기재하여 물성을 지닌 프린트로 전시한 후, 관객의 구매에 따라 온라인에서 삭제하여 컬렉터가 소장하는 단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었다. 또한 이 1,555개의 이미지를 컬렉터의 이름과 사진 넘버링을 기록한 인덱스와 함께 500부의 한정된 리미티드 에디션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작품으로 보여주면서 물질과 비물질 사진 이미지 사이의 욕망과 소유의 문제, 디지털 이미지의 에디션 문제를 다룬다.

**기술기****Seulki Ki**

〈토르소〉

Torso

2018,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Archival pigment print, 84x160cm

〈토르소〉(Torso) 외 여섯 작품으로 이루어진 이번 작품은 2016-2017년에 제작된 〈서브/오브-젝트〉(SUB/OB-JECT)와 2018년 제작된 〈시어터 니어 미〉(THEATER NEAR ME)를 재구성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것이다. 신체나 제스처, 오브제를 촬영한 사진이 배치되는 전시 공간은 살아있는 사람이 분장하여 정지된 모습으로 명화나 역사적인 장면 등을 연출하는 타블로 비방(Tableau Vivant)처럼 구성됨으로서 무대-대상-관객이라는 연극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사진 속의 대상이 가진 고유한 자연스러움이 삭제되는 과정을 통해 일상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며 신체는 불안의 기호로 변환된다. 이때 신체는 여러 레이어가 잠재된 차원을 상상하게 하고, 화면의 갇힌 틀을 넘어서 의미의 맥락을 확장하게 하지만 기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화하여 기록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작가는 2016년 후쿠오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근처 신사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와 자신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주된 것과 부차적인 관점이 뒤바뀐다는 의미의 ‘서브/오브-젝트’(Sub/Ob-ject)라는 주제의 모티브로 발전되었다. 이처럼 연극성,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 대상화의 역전 같은 시도들은 사진이미지가 온라인의 프레임에 벗어나 어떻게 역할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솔림****Sholim**

〈초상과 꿈〉

Portraits and Dreams by Sholim

2019, 단채널 비디오, 컬러, 무음,

1분 53초 Single-channel video, color,

silent, 1min 53sec

〈초상과 꿈〉(Portraits and Dreams by Sholim)은 얼굴과 풍경이 기묘하고 낯선 방식으로 변형되며 반복 재생되는 방식의 짧은 영상으로 페이스북, 텀블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전시)되며 유통된다. 작가는 전세계 어느 모바일 환경에서도 재생이 가능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가진 예술적 잠재력에 높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세계의 넘치는 상상력과 정보 보급 가능성, 심지어 어리석음으로부터도 작업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 온라인상에서 수집되고 재생산되고 퍼져나가는 이미지에 대한 감각적인 은유이자, 작품의 유통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안성석

Sungseok AHN

〈시소 기어가기〉

Seesaw crawling

2019, 3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2분

Three-channel video, color, sound,

22min

〈시소 기어가기〉(Seesaw crawling)는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박제되는지, 이미지 생태계를 은유하는 메타적 풍경이자 질문이다. 우선 여러 풍경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다. 사막이나 물 같은 초현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동시대 이미지와 이슈가 무작위로 무한정 수집되는 모습, 이를 포착한다고 믿어졌던 카메라나 CCTV가 껍데기만 남은채로 버려져 쌓여 하나의 지층을 이루는 모습, 불타는 이미지 속에 우리 자신이 반영되는 모습 등이 그것이다. 또한 쌓여있는 이미지 데이터는 시소 위에서 인간들의 활동, 미술의 오브제, 시스템 등과 그 의미와 가치를 두고 무게를 저울질하며 균형을 찾으려한다. 이러한 시각화는 수면 아래 있었던 온라인 이미지 생태계를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끈다.

프로그램 《리서치 쇼》



뉴-플레이어 리스트: 동시대 사진 작업의 감각 변화

이 리서치는 두 가지 집착을 전제로 출발한다. 하나는, 디지털 환경과 모바일 환경이 본격적으로 맞물린 2010년대부터 사진 작업에서 어떤 변화의 양상들이 감지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매체 환경의 변화가 (당연하게도) 작업자들의 감각과 사유도 변화시킨다는 것. 1980년대생 이후 사진 작업자들이 2010년대 이후에 발표한 사진 작업을 대상으로 이전과 차별되는 감각들을 추출해 살펴본다.

박지수 Park Jisoo

〈VOSTOK〉매거진 편집장. 〈월간사진〉, 〈VON〉, 〈포토닷〉을 거쳐 현재 〈vostok〉까지 줄곧 사진잡지에서 마감에 시달리며, 사진과 글을 고르고 다듬는 일을 해오고 있다. 사진전 <이민지 개인전: 사이트-레그>(합정지구, 2018), <리플렉타 오브 리플렉타>(합정지구, 2016)를 기획했다.



문학적 절대: 스냅 이데아

-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스냅 사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미지들의 모음 50여장 리서치
- 스냅을 규정하는 임의의 기준 (형식적/인식적/사회문화적) 정립
- 각각의 '스냅 사진'이 사진의 계보에서 자리하는 장소를 표기한 구조 리서치
- 각각의 '스냅 사진'이 외부로부터 읽히는 필터를 정리해본 관계망 리서치

박수지 Suzy Soma Park

현재 서울을 기반으로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학부는 경제학을, 석사는 미학을 전공했다. 부산의 독립문화공간 아지 트 큐레이터를 시작으로, 미술문화비평지 《비아트》 편집팀장, 《제주비엔날레2017》 큐레토리얼팀, 통의동보안여관 큐레이터 로 일했다. 《춤 백 카메라》(2019), 《정은영 : 어리석다 할 것인가 사내답다 할 것인가》(2018), 《김정현X주재환 : 유쾌한 문득》(2018), 《민중미술2015 : 우정의 외면》(2015) 등을 기획했다. 현대미술의 정치적, 미학적 알레고리로써 우정, 사랑, 종교의 실천력에 관심이 많으며 이에 대한 전시와 비평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포럼A Forum A**

‘포럼A’는 기획자, 비평가, 작가 등이 모여서 미술에 대해 토론하고 그 토론을 바탕으로 잡지를 만드는 팀입니다. 주로 미술 비평이 길들여진 것, 미술 제도가 간과한 것, 미술 창작이 놓친 것들에 대해 토론하며, 새로운 미술 언어를 고민합니다. 잡지 『포럼A』는 2017년 재창간되었으며, 정기간행물이 되기를 꿈꾸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손이상 SOHN Yisang**

짤방 수집가. 86 기가바이트의 강아지 사진과 11 기가바이트의 팬더 사진을 가지고 있다. 주로 모으는 짤방은 전세계의 동물 사진과 건축물 사진이다. 부업으로 기록 사진을 찍는다. 부부업으로 공연기획을 하고 부부부업으로 한국일보에 칼럼을 연재한다. 부부부부업으로 서울민예총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한국민예총 이사를 지냈다.

이미지, 어디까지 속아줄 것인가?

이제 사람들은 이미지라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예전처럼 왈가왈부 하지 않는다. 원본과 사본 사이에 가치의 위계를 두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하이퍼리얼의 사례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디지털 이미지는 실재와 비슷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 한다. 그런데 의외의 지점에서 가치의 위계가 공고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미지를 만든 주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이미지의 신뢰도를 결정하고 여전히 이미지의 진정성(authenticity)이라는, 어딘지 낱아빠진 개념을 들먹인다. 이미지가 실재가 아닌 것은 상관 없지만, 이미지를 만든 주체가 믿을만해야 이미지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수많은 가짜들 사이에서 어느 가짜에 속아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포럼A는 최근 이미지에 관한 논의에서 진정성이 좀비처럼 되살아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묻는다. 그 때도는 망령들은 왜 사라지지 않는걸까? 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되돌아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낱은 것들 중 결국 물어버릴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

순례의 증거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시각이미지들은 이미지 생산주체들의 자기 존재 확인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다. 더 우아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인스타그램어들은 스스로 예쁘고 멋져 보이려고 사진을 찍어 올린다. 그렇게 생산/유통되는 사진 가운데 특히 여행사진은 당사자가 특정 장소에 다녀왔다는 증거물로 기능하므로, 사람들은 여행지에서 자신의 행적을 증명하기 더 좋은 배경공간을 취사 선택한다. 그것이 이른바 인증샷이다. 여기 남북한을 다녀간 사람들이 있다. 남한에 다녀간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주로 상상하는 자국의 이미지와 사뭇 다른 풍경을 적극적으로 발견한다. 북한에 다녀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뒤에 펼쳐진 남북한의 풍경을 비교하면 관광객들이 두 나라의 수많은 풍경들 가운데 어떤 풍경을 주로 선택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 두 나라의 이미지가 타자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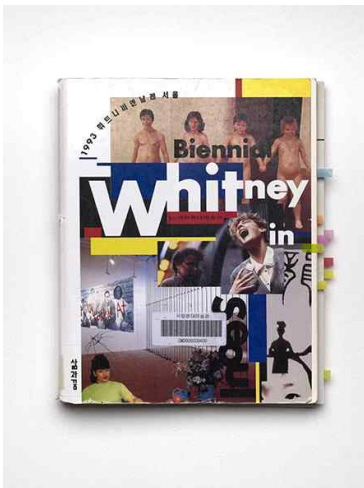
**최혜영 Choi hyeayeong**

최혜영은 제주 강정마을에 8년 째 살고 있다. 평화 활동가로 살며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을 한다. 2014년 겨울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다. 조사 초기에는 물속에서 일정하게 줄을 치거나 연산호에 방형구를 대 수중촬영을 보조했다. 해상 공사 이전의 물속 아름다운 모습들은 남들이 찍어놓은 사진으로만 보았다. 변해 가는 바다와 연산호를 기록한다는 일은 때로는 허무하고 지난한 일이다. 그럼에도 꾸준히 하는 일들이 많다. 강정 연산호 조사가 그렇고 강정에서 사는 일이 그렇다.

국가를 막아선 사진들

“문화재청은 최근 7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강정 크루즈 항로를 30도로 변경하기 위한 주변 연산호의 준설을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민군복합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2016년 완공 후 단 두 차례의 크루즈 입항만을 가졌다. 애초부터 제대로 된 항로 없이 해군기지를 먼저 지놓은 후에 크루즈 입항이 어렵다며 연산호 군락을 ‘암초’라 운운하며 문화재청에 준설을 위한 현상변경신청을 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TFT>은 2018년 11월, 2019년 8월 총 네 차례의 조사를 가졌다. 조사결과 30도 변경 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범섬 지역을 가로지르는 항로로,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이 있는 저수심 지역임을 확인했다.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황금수지맨드라미, 둥근껍산호, 둔한진총산호, 직립진총산호, 꽃총산호, 빨강별총산호, 빛단풍돌산호, 거품돌산호, 해송, 긴가지해송, 호리병말미잘, 큰산호말미잘 등 다양한 산호총류와 다수의 미확인종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연산호 사진과 영상을 중심을 내용으로 하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엄청나게 대단하지도 않은 연산호 ‘사진’이 크루즈 준설을 막았다. 하루아침에 900그루의 나무가 사라진 비자림로 도로확장 공사에서는 팔색조 ‘사진’으로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사진이 이렇게도 대단했던가. 아니면 국가 혹은 국가 시스템이 이리도 허술하고 이상한건가. 이 리서치는 ‘고작 그 사진 한 장’에서부터 시작한다

**송수정 Sujong Song**

출판부터 전시기획까지 이미지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왔다. 세계보도사진상 심사위원, 세네갈 다카비엔날레 큐레이터, 서울루나포토 공동 대표 등을 거쳐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 연구기획출판팀장으로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사례로 본 미술관과 사진

한국에서 사진이라는 매체가 미술관으로 수용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으며 역사 안에서 사진이라는 개념의 확장을 확인하고 어떤 지점들이 사진을 당대의 뉴미디어로써 작동케 했는지 되돌아본다. 더불어 동시대 사진-이미지가 미술관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 도래할 사진의 조건과 환경 앞에서 미술관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혹은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본다.



디지털 시대 - 이미지와 욕망에서 비롯되는 감시와 인공지능

본 리서치는 더이상 디스토피아를 상상하는 것이 무의미해진 시대, 자본주의의 최신 OS버전인 감시자본주의 시대의 원동력이 되는 정보통신과학기술(ICT) 중 얼굴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분석하며 그 기반이 되는 권력과 기업의 욕망과 문제점 그리고 현재의 이슈를 살펴보고 동시에 그에 대항하는 시민적 움직임을 소개하고 제시한다.

김민 Kim Min

도시의 철거/점거 현장으로 시작해 다양한 시민들의 투쟁 및 각종 집회와 시위 등 사회적 이슈에 연대하며 사진을 찍어왔다. 최근에는 공권력과 자본의 감시 문제에 관심이 많아져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활동하며 정보인권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전가경 Kay Jun

사진과 텍스트의 관계 및 그래픽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글을 쓰며, 종종 전시를 기획하기도 한다.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진책 출판사 사월의눈은 사진과 텍스트 그리고 이를 주선하는 행위이자 장치로서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과 기능을 질문하고 탐색하는 플랫폼이다. 지금까지 총 14종의 사월의눈 사진책을 기획, 편집했다. 『세계의 아트디렉터 10』(2009)와 『세계의 북디자이너 10』(2016: 공제)을 썼으며, 박사논문으로 『잡지 『뿌리깊은 나무』 연구 :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중심으로』(2017)가 있다. 6년차 대구에 살고 있는 서울 출신의 대한민국 국적 시민이다.

전위(avant-garde)와 후위(arrière-garde)의 교차: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잡지 <샘이깊은물>의 포토/텍스트(photo/text)

잡지는 시대정신의 압축물이다. 상업주의와 황색 저널리즘에 굴복하는 잡지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를 시대의 역류로 위치시키는 잡지가 있다. 한국에서 1984년 11월에 창간되어 2001년 11월을 마지막으로 발행된 잡지 <샘이깊은물>은 후자에 속한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재고하고 새 지위를 추구했던 잡지는 여성이 소재이자 주제가 되는 다양한 기사를 생산했다. 흑백톤의 여성 초상 표지는 이에 대한 무언의 시각적 발언이었으며, 이러한 조형적 전략은 80년대 일반 여성 잡지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에는 당시 팽배했던 전통적 여성관이 산발적으로 박혀 있다. 무엇보다 광고사진이 그러했으며, 표면적으로는 '전위'를 내세웠지만 '후위'의 관념을 어쩔 수 없이 노출시킨 몇몇 기사들이 그랬다. 표지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서사'가 대부분 혼인 혹은 결혼 후 경력단절로 기술되는 사진설명 또한 그런 인식의 한계를 노출시킨다. 이 연구는 표지사진과 광고사진은 사진으로, 표지사진 설명과 기사는 텍스트로 구분하고 잡지에 나타난 사진/텍스트적 특이점을 검토한다. 이 연구에는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는 사진, 그러니까 텍스트로부터 독립한 사진이란 사실상 없거나 혹은 불가능하다는 기이한 믿음이 배경에 서있다. 대중과 매체 그리고 사회를 횡단하는 사진들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관념(텍스트)의 산물이거나 이를 의식적으로 반박하는 또다른 (전위) 세력들이다. 연구는 질문한다. 사진과 텍스트의 교차로에서 80년대 중후반 한국의 여성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기사에서 드러나는 텍스트의 급진성과 광고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후진성은 어떻게 충돌하는가, 잡지의 이미지와 텍스트는 80년대 진보적 여성 운동을 어떻게 흡수하고 또 투영하고 있는가. 연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샘이깊은물>의 사진/텍스트 장치를 관통하며 던진다. 분석대상은 창간호부터 1989년 12월호까지로 한정짓는다. 80년대 여성의 현 위치를 기술하는 장문의 표지사진 설명이 1989년 12월호를 마지막으로 끝나고, 잡지를 살펴보는 시대적 축으로 1990년대와 구분되는 1980년대 한국 여성운동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몸과 몸 사이

이 리서치는 동시대 여성창작자들과 함께 이미지 안에서 여성의 몸을 대하는 태도, 그에 따른 불편함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리서치의 결과로 여성혐오적 이미지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의 몸과 목소리로 그 이미지에 대항한다. 대항하는 이미지, 현재의 이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든다.

황예지 yezoi hwang

황예지는 199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수집과 기록에 집착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들의 습관 덕분에 자연스럽게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다. 거창한 담론보다는 개인의 역사에 큰 울림을 느낀다. 가족사진과 초상사진을 중심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어나가고 있다. 사진집 <mixer bowl>과 <절기, season>을 출간하고 개인전 <마고, mago>를 열었다.

SeMA

Seoul Museum of Art

Press Release Ver. 1

2019서울사진축제

기본 정보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담당 큐레이터: 권혜인 (학예과)

전시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실2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508)

Tel. (02) 2124-5270, Fax (02) 2124-5280

관람시간: 평일 10:00 - 20:00

토·일·공휴일 10:00 - 19:00

뮤지엄 나이트(매월 1&3주 금요일)

문화가 있는 수요일(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0:00 - 22:00

매주 월요일 휴관

무료 관람

홍보 문의: 홍보담당 큐레이터 김채하(02-2124-8928)

작품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접속 (<http://sema.webhard.co.kr>)

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로그인 후 이미지 다운로드

SeMA

Seoul Museum of Art

Press Release Ver. 1

2019서울사진축제



SeMA

Seoul Museum of Art

Press Release Ver. 1

2019서울사진축제



SeMA

Seoul Museum of Art

Press Release Ver. 1

2019서울사진축제

